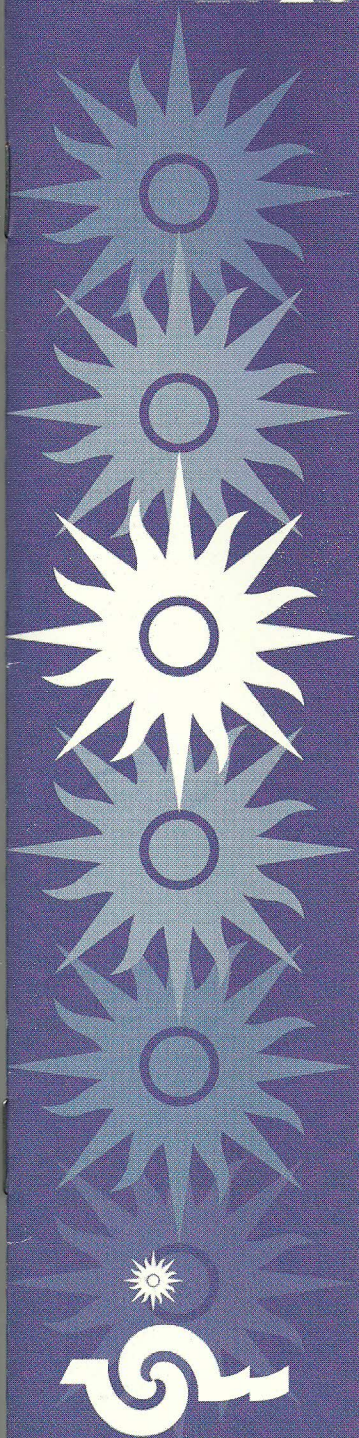


20202002 AG와 함께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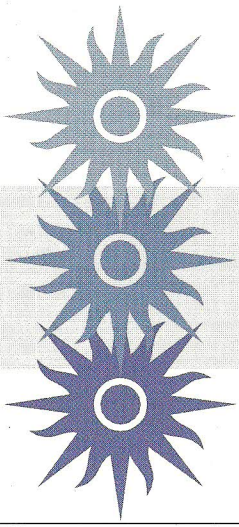
현대춤

혜와 달



14th Asian Games
BUSAN 2002

2002. 11. 8(금). PM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본 공연은 2002 아시안게임을 맞이하여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아시아인의 정신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바람, 그 의미를 깊이 조명하기 위해 현대춤과 아시안게임 스포츠 종목의 움직임 이미지를 접목하여 예술적으로 형상화하였으며, 그 만남으로 아시안게임을 함께 하는 아시아의 문화시민들이 무용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rogram

스포츠의 움직임을 음·양의 이치로 바라보면서 정성과 집중의 결정체로 만들어진 동작과 정지를 통해 무용적인 아름다움을 찾아본다.

I. 해·달

>>> 달-陰-靜的美

달은 음양의 음이며 움직임의 끝이다.
신체의 생명력이 살아나기 전의 마음·신체·호흡을 다지는 순간이며 잠재된 힘이 일으킬 수 있는 안정적인 유대감이다.

- 움직임 후 靜의 생성
- 靜의 완성
- 움직임 전 靜의 소멸

>>> 해-陽-動的美

해는 음양의 양이며 정지의 끝이다. 즉 정적인 것이 쇠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동적인 것이며 “해”는 이 동적인 것을 의미한다.

- 움직임의 시작
(정지의 끝에서 다음 움직임으로 가는 모습들)
- 움직임의 중간
(꽃의 만개와 같은 움직임의 융성함)
- 움직임의 끝
(움직임의 끝에서 정지로 가는 모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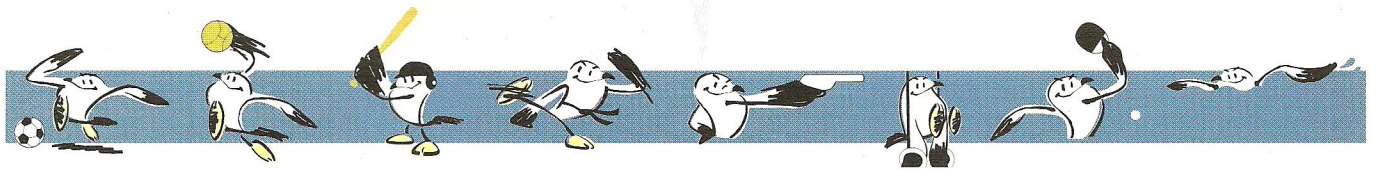
II. 해와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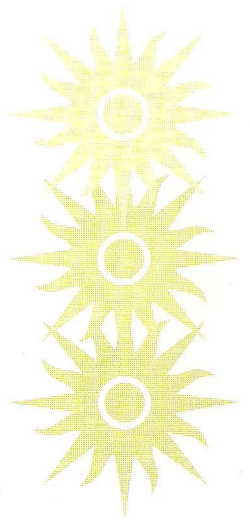
변화의 연속과 불연속, 긴장과 이완 그 공존의 변주곡인 태극(太極)이 움직여 양을 낳고, 이 움직임(動)이 극단에 이르러 고요하며(靜) 고요함은 음(陰)을 낳고, 이 고요함이 극단에 이르면 다시 움직임이다. 이렇듯, 움직임은 고요함의 존재발생원인이며, 고요함은 움직임의 존재발생원인인 것이다. 해와 달은 이러한 개체의 음·양의 이치와 조화, 그리고 개체들이 모여서 만드는 음·양의 조화를 형상화시킨 것이다.

- 음·양의 대비
- 음·양의 조화
- 음·양의 반복과 변주



연출 **장 경 욱** (부산예술문화대 교수)
영상제작 **남 우 영 · 이 헌 기 · 이 상 환**
무대미술 **박 선 영**
조명 **강 양 일**
음악 **이 헌 응**
의상 **이 윤 경**
사진 **이 동 걸**
기획 **김 정 란**
홍보 **송 경 묘**





Choreographer

먼저 아시안게임의 문화행사 일환으로 창작된 '2002 AG와 함께 하는 현대춤'을 무대에 올릴 수 있게 해주신 제 14회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이 작품은 아시안게임 스포츠 종목의 동작 움직임을 현대춤에 접목하여 두가지 동적, 정적 움직임으로 예술적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음,양의 조화를 태극의 기운으로 표현하였으며, 아울러 춤과 스포츠의 움직임 이미지 만남을 예술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몸의 이미지화 하는 작업이 늘 함께 하는 스포츠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 스포츠의 일체된 정신의 아름다운 혼을 느낄 수 있었던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와달"작업에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무용수 여러분, 그리고 늘 격려와 질책으로 가르침을 주신 정귀인선생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현. 부산대, 울산대, 부산문화예술대, 울산예고 강사
부산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작 품.

사랑을 위하여(1993) 다락방에 핀 꽃들(1994)
New Dance Drama(1995) 천애(1996) 염(1999)
향(2000) THE WALL(2000)
HORIZON(2001)
MODERN DANCE WITH SCREEN(2001)
정동, 영경귀, 망부석(2002)

2002. 9. 울산문화재의 넋을 위한 굿춤 / 울산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2002. 9. 전국무용제 젊은 안무가전 야외무대
2002. 5. 서울공연예술제 자유참가 / 포스트극장
2001. 11. 월드컵 기념공연 / 아시아드주경기장
2001. 10. 스크린과 함께 하는 현대춤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1. 7. 월드컵을 위한 현대춤 /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00. 10. THE WALL /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0. 6. 대구무용제참가 /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999. 9. 세계무용연맹공연 WDA참가 / 예술의 전당
1999. 5. 부산무용제참가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